

전국의 5일장 발로 찍고 렌즈로 찍고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이수길

새벽녘 보따리·물동이 이고 진 사람들 등 정감어린 장터 문화와 풍경 고스란히 담아

여명도 채 들지 못한 새까만 새벽 4~5시, 사람들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즈음이 가장 시작이다. 자명종 소리에 홀연히 일어나 홀로 장터를 행진한다. 이때 깨어나지 않으면 위대한 삶의 현장을 온전히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 아프리카 오지 속 맹수들의 밤을 깨는 탐험가라도 되는 듯 새벽잠을 마다하는 이 사람. 우리나라 전통시장 가운데 오로지 5일장만 카메라에 담는 이수길(53)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다. 그는 "5일장은 위대한 삶의 현장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역, 여기서 나왔다고 믿습니다"고 확인했다.

우리 장터의 땅과 눈물방울이 지금 우리나라의 중추를 이루는 자식들을 키워 냈다는 말이다.

경기도 고양에 고향인 이 작가는 교고 시절 카메라를 접한 뒤 사진예술에 매혹됐지만 집안 사정으로 꿈을 접었다. 11년간의 일본 유학을 거쳐 1998년 대학 강단에 서면서 부산과 인연을 맺은 뒤 나이 마흔 넘어 필름이 필요 없는 디지털 카메라와 운명적으로 만난다.

부산의 한 대학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그는 학기 중엔 주중 3일, 방학이면

거의 매일 전국 5일장을 찾아다닌다. 장터 폭박을 지역별로 꼼꼼하게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만든 5일장 전국 지도에는 그가 찍은 발자취가 무수한 점들로 빼곡하다.

지금까지 지도에 기록한 전국의 5일장은 270곳에 이른다.

이 작가는 "5일장을 처음부터 보려면 새벽에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따리·물동이를 이고 진 사람들이 시골 버스에서 내려 물건을 부려 놓고 준비하는 모습은 일반 장터에서 볼 수 없는 우리나라 문화지요."

5일장에 나서는 이들은 아재·생선·웃 같은 단출하기 짝이 없는 물품들을 품고 수십 년간 장터를 왕래한 시골 할머니들이 대부분이다.

거기에는 상흔이라 이름 부를 수 없는 순수함이 있고, 우리 고유의 문화 흔적들이 날것으로 스며 있다.

그가 5일장을 고집하는 것은 지난 시절의 문화와 풍경이 소멸되기 전에 기록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새벽잠 설치 가며 전국 장터를 돌아다니고 육을 들어가며 카메라를 들이미는 고단한 삶에 힘을 바칠 이유가



이 작가의 꿈은 적지만 숨어있는 전국의 5일장을 계속 발굴하는 것이다. 위 작은 장들이 아직 200여 개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를 수집하고 쉽게 찾아 가자고요"라고 입가에 미소를 띠었다. /정해은 기자

“우수 출판콘텐츠 140편 출판비용 지원합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우수출판콘텐츠 140편을 선정해 제작·지원할 예정이다.

출판진흥원은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매년 저자·출판사들의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지난해에는 2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올해도 미 발간된 국내 창작 원고와 출판기획안을 총 140편 선정해 편당 1000만원(저작상금 300만원, 출판제작지원금 7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출판사 모두 응모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4월 18~29일이다. 출판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선정작의 30% 내외를 1인출판사·지역출판사 응모자 가운데 선정한다. /정해은 기자

생활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로 정읍시, 문체부 우수정책 선정

구도심 정촌, 3년간 무료임차해 문화공간으로

정읍시 「지역과 공존하는 생활문화예술」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최한 2016 지역문화융성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에서 우수정책 사례로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최근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 대통령 직속기구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을 수상했다.

「지역과 공존하는 생활문화예술」은 생활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로 지역문화융성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취지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시는 지역문화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해 정읍시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제도적인 지원 장치를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먼저, 길거리공연과 누구나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빈 집 도심 은행, 음식점과 커피숍 등 일상공간을 창작전시문화 공간으로 활용해 생활문화예술의 일상화를 꾀했다.

특히, 구 도심 정촌(함곡4동)을 3년간 무료임차 받아 파견예술인사업 문화거점 공간으로 삼아 다수의 전시와 공연을 가졌다.

칠석날 골목파티와 할로윈파티, 프리마켓, 연극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다문화가족)'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시는 또 문화예술공간 확충에도 적극 나섰다. 소공연장과 상시 전시 공간 확보를 위해 옛 정읍군청 자리에 216석 규모의 연극아트홀 건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생활문화 활성화 거점 공간 확보의 일환으로 근대문화유산인 신대인 도정공장 창고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김생기 시장은 "시민들이 길거리공연과 전시회 참여 등 생활문화예술을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하면서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이를 통해 지역민 화합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각지의 다양한 사례와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정음=김대환기자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우수'

전국 유일 미디어연구소 등 새로운 공공문화 조성에 힘써

전국 30개 미디어센터가 회원으로 있는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에서 지난 4일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를 2016년 우수지역미디어센터로 선정했다.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는 매년 지역 영상·미디어·문화와 참여적 소통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미디어센터를 우수지역미디어센터로 선정하는데 2016년엔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이하 익산미디어센터)가 유일하게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익산미디어센터는 지난 2008년, 2009~2010년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운영평가 사업에서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으며 전국 최초의 미디어센터 모델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공공적 미디어영역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새로 생겨나는 미디어센터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겪을 수 있는 정보와 의사소통의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고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며 지역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다가가는 새



로운 공공문화영역을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개관 7년 동안 다양한 성과를 일궈내고 있다.

전국 유일의 미디어연구소 운영을 통해 일반시민들의 방송접근권 강화(퍼블릭 액세스)를 위한 지원과 적극적인 활동을 이루어 왔으며 호남지역 미디어센터간의 네트워크 창립과 공동 교육사업 및 교재개발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미디어교육의 확대와 강화를 위해 익산지역의 공동체 성장과 미디어교육 보편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전북교육청 및 익산교육지원청의 연계를 통한 학교 미디어교육 제도화 체계를 확

보하고 방과 후 학교, 특기적성 교육 등 공교육 안에 미디어교육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 왔으며 유아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및 이주민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미디어교육을 진행하며 지역 시민들의 민주적인 미디어 활동을 이끌고 있다.

익산, 전북 지역의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체계화를 위해 8년째 미디어교육 교사를 직접 양성하여 센터 내에서 진행되는 미디어교육 뿐 아니라 지역 곳곳의 복지시설, 교육기관, 학교 등 다양한 기관 및 시설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익산미디어센터는 아카이브 및 전용상영관인 재미극장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지역의 유관 기관 및 시설 단체들과 함께 익산여성영화제, 익산다큐영화제, 익산장애인영화제 등을 준비하고 개최하여 그들의 문화 활동과 내부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그들의 이야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얘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읍면지역 주민들에게는 찾아가는 재미극장을 통해 다양한 지역민들이 영상문화를 향유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최문자 '파의 목소리' 한국시인협회상 수상

한국시인협회가 제48회 한국시인협회상 수상자로 최문자(73) 시인을 선정했다.

수상 시집은 '파의 목소리'(문학동네·2015)다.

시인협회는 "정진규, 오세영, 유안진, 이명수 시인이 심사위원을 맡아 지난해 출간한 시집을 대상으로 시적 성취가 뛰어난 시인을 선정했다"며 "최문자의 시는 한국시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언어의 신선함과 서정성이 돋보인다. 시집 '파의 목소리'는 내면적 고뇌와 서정적 울림으로 소품의 공감을 현대적으로 이끌어냈다"고 평했다.

시상식은 28일 서울 중구 예장동 문학의집서울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순금 메달을 수여한다. /정해은 기자

<p>▷쥐띠 46년생: 타인과의 화합에도 중요하며 좋은 결과는 얻을 수 있는 활기찬 운이다. 50년생: 좋지 않은 일에 휘말릴 수 있는 운. 72년생: 욕심을 버리는 것이 좋겠다. 84년생: 자신만만한 일에도 실수가 따르는 운.</p>	<p>▷소띠 49년생: 자신의 위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운. 61년생: 행동하고 배운 만큼만 돌아오는 운이다. 73년생: 다른 사람과의 화합을 중요시해야 하는 운. 85년생: 자신이 정한 길을 알아버리지 말아야 한다. 우왕좌왕 하는 모습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p>	<p>▷호랑이띠 50년생: 구슬수와 시비수가 따르는 운. 62년생: 마음을 다스리고 차분하게 행동하라. 74년생: 어려운 일이 있다면 회사원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다. 86년생: 참고 인내하면 좋은 일이 생기게 되니 순간의 감정을 억눌러라.</p>	<p>▷토끼띠 51년생: 같은 화려하나 속은 부실한 운. 63년생: 경쟁자를 만날 수 있는 운이다. 75년생: 기존의 해오던 방식으로 현상유지 하는 것이 좋다. 갑작스러운 변동은 혼란만 야기한다. 87년생: 정신적으로는 편안하지 않으나 말적으로는 좋은 운이다.</p>
<p>▷용띠 52년생: 자신의 주변에 참모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64년생: 자신의 뜻을 굽힐 줄도 알아야 발전이 있는 법이다. 76년생: 맺고 끊는 것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운. 88년생: 하고자 하는 일을 능동적으로 진행하라.</p>	<p>▷범띠 53년생: 외부에 화려하나 내부적인 일은 혼란스러운 때. 65년생: 아직은 길한 운이 아니니 금전적인 부분이나 결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노력하라. 77년생: 사람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힘든 운. 89년생: 주변의 시선에 의식하지 말아야 편안한 운이다.</p>	<p>▷말띠 54년생: 마음을 다잡으며 차근차근 진행하라. 66년생: 방심은 금물.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조심하라. 78년생: 사소한 일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운. 90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을 때에는 잠시 쉬어가라.</p>	<p>▷양띠 56년생: 크게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68년생: 주변의 상충을 인해 이리저리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중요한 일은 뒤로 미뤄라. 79년생: 좋은 일 하러다 뺨맞는 격. 나서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91년생: 작은 일은 좋은 결실을 맺으니 큰일은 풀리리라.</p>
<p>▷원숭이띠 55년생: 지금까지의 상생에 전희점을 가져야 한 시기. 67년생: 외부적인 일에 이득이 많다. 80년생: 금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라. 92년생: 실물수가 따르니 자신의 물건을 잘 관리하라.</p>	<p>▷닭띠 57년생: 예상하고 있던 일이 빛나갈 수 있으니 그 후의 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 69년생: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을 조심해야 하는 운. 81년생: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하는 운이다. 93년생: 급할수록 풀이가지 하는 때.</p>	<p>▷개띠 49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린다. 59년생: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명심하라. 70년생: 부하나 이행사로부터 원망을 들을 수 있다. 원망하는 사람을 탓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 82년생: 조목조목 일을 할 수 있는 운.</p>	<p>▷돼지띠 47년생: 말과 행동을 할 때 상대방 사람에게 따라 구별해서 해야 하는 운. 59년생: 타인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운. 71년생: 매사 요령 있는 대처가 필요한 운이다. 83년생: 작은 일에 대한 결과는 오히려 욕심이 화근 부른다.</p>